



관덕정

2014년 3월 26일(통권 제67호)

700-832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yi@daegusaint.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com>



순교를 향한 발걸음

시복의 기쁜 소식을 접하며...

기획위원회
정의섭(마리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승인!

지난 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우리 순교자의 시복을 승인하셨다는 교황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복결정의 가슴 벅찬 기쁜 소식을 접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것은 저만의 기억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제23회 윤일제는 ‘선교의 꿈’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고 계신 외국 신부님들의 삶과 신앙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해시대 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하신 선교사 신부님들이 계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반평생 이상을 우리 사회 안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사셨던 선교사 신부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참으로 가슴 벅찬 소식이 또 한 번 울려 퍼졌으니 말입니다.

1984년 103위 시성식 이후 30년 만에 우리 천주교에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이자 아주 큰 경사였습니다. 1998년 당시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시복시성 추진을 선포하신 이후, 준비과정, 시복재판 과정, 교구 시복시성 운동, 2009년 시복조사 문서의 교황청 시성성 접수, 전체 교우들의 시복시성 기도 운동... 그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증거하신 신앙선조들이 물려주신 믿음과 순교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유산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지요…. 시복시성은 이미 천국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순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징표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이번 124위 시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은 아주 특별한 기쁨이요 은총이면서 우리에게 책무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복 승인 후 지난 2월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교구시복시성위원회에서는 시복대상자 20위에 대한 삶과 영성에 관한 나눔과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박해로 대구에서 순교하신 김종한 안드레아와 열 분의 순교자, 정해박해로 순교한 박사의 안드레아와 다섯 분 순교자, 병인박해로 울산 장대벌에서 순교한 이양등 베드로와 두 분의 순교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20위 순교자들을 묵상하는 동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탁월한 용덕, 모범적인 육중생활, 고신극기의 신앙생활, 베품과 나눔의 생활, 감동적인 효성, 엄격한 수계 생활, 형제간의 우애 등 그분들이 박해의 어려운 삶 속에서 사셨던 신앙의 삶을 느끼게 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순교의 삶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고 그분들을 따르는 것인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께서 보여주셨듯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실천하는 신앙이라야 시복의 참 의미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신앙 선조들에게 순교의 월계관을 씌워주신 은총의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124위 시복을 기원하며 전국성지순례를 떠나다

성지순례위원회
장 휘 제(필로메나)

2013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오던 관덕정 봉사 식구들의 순례 여정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2014년 1월, 제23회 성 이윤일 요한제를 앞두고 관덕정 봉사식구들은 많은 기도로 윤일제를 위해 애써왔다. 9일 기도 기간 동안 자기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낮은 곳에서도 즐거움으로 높은 곳을 향해 사시는 선교사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교자에 대한 순례의 마음은 더욱 다져졌다.

2014년 올해는 103위 성인이 시성되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124위 ‘하느님의 종’이 시복되는 기쁨의 해이다. 관덕정 봉사 식구들은 그래도 순교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관덕정에서 묵 잘려 순교하신 이윤일 요한 성인을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관덕정 봉사 식구들이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였다. 특히 124위 ‘하느님의 종’이 시복되기 전 그분들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며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향해 순례하기로 마음 모았다.

관장 신부님과 함께 여러 차례의 회의와 기도로 순례 결정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2월 13일(목요일) 뜻 깊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동안, 참가인원 결정, 연락, 준비 사항, 첫날의 성지선정……등등

조금은 힘든 점이 있었지만, 관장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덕택으로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함께 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성지순례 위원회의 위원들은 순례의 여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 모아 고리목주기도와 9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가슴 설레며 희

망에 찬 마음으로 관덕정 봉사식구 41명이 관장 신부님과 함께 124위 시복을 기원하며 ‘한국천주교성지순례지’ 111곳을 2년 동안 순례하기로 하고 2월 13일 새벽 6시 20분에 관덕정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첫 순례지를 향해 차에 올랐다.

긴장되고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드렸다. 특히 신부님께서 순례하는 동안 각자가 원하는 기도지향을 가지고 순례하기를 당부하셨다. 신부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바라는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사 청했고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순교자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드렸다.

관덕정을 출발하여 부산교구의 성지를 향했다. 김범우 묘소, 오륜대순교박물관, 수영장대, 조씨형제묘를 순례한 후 마산교구의 박대식묘, 신석복묘, 명례성지로 돌아왔다. 순례하는 동안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순교자들의 얼을 가슴 깊이 새겨보았고 산길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들었지만, 순교자들의 순교 신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관덕정 순교성지의 봉사자답게 살아가자고 다짐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111곳의 성지를 향한 첫출발은 시작되었다.

이번 순례 여정이 남은 인생에 가장 큰 기도이고 실천이기에 모두 다 어려운 일도 생기지 말고 아프지 않고 건강히 순례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의 영광을 드러내어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순교 신심으로 성장되어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모쪼록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주시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직 남은 여정이 많기에 더욱 깊은 기도를……

은혜로운 시기

대덕성당
박문자(헬레나)

연두빛
바람이 스친다
물 오른 가지에 알 눈
마디마디 눈 맞추며
빈 가슴 불 지핀다

구원의 십자가 품고 가시며
아파하는 주님 고통
우리 죄에 눌리셨네
회개하는 기도소리
바람타고 천상으로
마음 밭에 믿음 심네

순교자시여!
피 비린내 형틀도
형리의 칼날도
님의 마음 흠쳐가지 못 했으니
님의 먼 “눈 울음” 그치시고
숨결마다 함께하는 주님은총

아……. 이 밤도
바람에 스치는 별을 헤아린다



소화 데레사 사랑의 엘리베이터

자크 필립 지음/윤영희 옮김

“우리 시대는 나약하고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덕으로 부르시고, 또 복음의 깊은 뜻을 심오하게 살도록 힘차게 외치고 계시는 이 시대에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가 제시한 신뢰와 사랑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자는 우리를 색다른 피정 강론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피정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날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 중에 인용 문구를 되새기며 그것들이 내 구체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과연 나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자문하면서 피정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죽음 후에 엄청난 임무를 직감했다. 그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경이롭게 전파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녀의 기대를 초월해 작용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 저자는 데레사 성녀의 삶을 살펴보면 그녀가 받은 영감들이 우리에게, 특히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에 얼마나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처럼 허약하고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해 성녀 데레사는 ‘완전히 새로운 작은 길’을 제안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약한 이들을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로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성녀 데레사가 발견하고 살았으며, 리지외의 가르멜 수련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길, ‘신뢰와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서 리지외의 가르멜이라는 작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무수한 ‘작은 영혼’, 우리에게도 이 길을 드러내서 사랑의 최고 정점까지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일찍이 데레사는 간파했다.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고 계시니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삶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깊은 갈망이 있으면 된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



새사제 미사



2014년 1월 11일(토) 17시 미사에 작년 12월 27일 서품 받으신 새 사제 열 두 분이 모두 오시어 미사를 봉헌하였다. 새사제들은 교구주보이신 순교자 이윤일 성인이 묻히신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순교의 삶으로 사제직을 출발하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미사에 오신 모든 신자들에게 새사제의 축복과 안수가 있었으며 관장신부님은 새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제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올해 윤일제는 ‘선교의 꿈’을 주제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 신부님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온 선교사 신부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시대에 요구되는 순교자다운 삶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이번 윤일제 9일 기도 함께 한 교우들은 선교사 신부님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 작은 기쁨도 가질 수 있었다.



1일차 - 박문수(F.히비에르) 신부님



2일차 - 유상환(프란치스코) 신부님



3일차 - 오기백(다니엘) 신부님



4일차 - 야렉 카미엔스키 신부님



5일차 - 허보록(필립보) 신부님



6일차 - 하유설(요셉) 신부님



7일차 - 유의배(알로이시오) 신부님



8일차 - 인만희(마누엘) 신부님



9일차 - 노송피(로베르토) 신부님

1월 21일(화) 교구 제2주보이신 성 이윤일 요한 순교 기념 미사에 이용길(요한) 총대리 신부님, 1대리구 주교 대리 하성호(요한) 신부님, 시복시성위원장 박석재(가롤로) 신부님 그리고 관장 여영환(웃도) 신부님께서 함께 미사를 집전해 주셨다. 총대리 신부님께서는 강론을 통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방법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우리 자신부터 복음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관덕정 영성 강좌



3월 1일(토) 서봉세(질베르토) 신부님께서 수년 동안 연구 해오신 한국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특강을 해주셨다. 그 당시 하느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 순교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신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교회사 강좌

지난 2월 8일(토) 장석하(미카엘) 교수님께서 관덕정 순교기념관 건립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사연과 관덕당 역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특히 누각의 설계와 단청의 특수무늬와 색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시복기원 성지순례



관덕정 봉사자 40여 명이 관장신부님과 함께 부산과 마산지역을 2월 13일에 순례하였으며, 3월 12일과 13일에는 봄비 속에서 광주, 전주 지역 순례를 마쳤다.

국내 성지순례

지난 3월 16일(일) 관장신부님을 포함한 45명의 순례객이 대전교구 진산 성지를 순례했다. 진산 성지 담당 신부님은 강론 중 윤지충(바오로)와 권상연(야고보) 순교자의 생애와 성지를 소개해주셨다.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3월 21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양전	故길영기	故김경호	故김금분	故김재익	故김정순	故김정한	故김관준
故도기돈	故민병철	故박군자	故박귀동	故박명수	故박연금	故백기순	故백옥신
故변명진	故서숙희	故손미숙	故손준호	故여인철	故유재효	故이동순	故이봉순
故이점술	故이증구	故이칠성	故이관임	故이화우	故장재만	故정순호	故정종석
故조인구	故최봉남	故하홍환					
강구희	고경자	고시영	권애실	권양조	권재도	김규란	김기산
김묘연	김미량	김복남	김종출	김태련	김태순	김판구	김희옥
류병조	박외덕	서성탁	송복임	송춘자	여태금	오경탁	이기호
이남은	이다경	이바오로	이분세	이성현	이양자	이점문	이정숙
이호생	장진미	전성순	조순정	최필조			

가족 회원

강주선가족	권미정가족	권장섭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명희가족
김연정가족	김영숙가족	김외금가족	김용주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삼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주형가족	김현태가족
남순태가족	노 옥가족	노재희가족	도황보가족	류세종가족	류진춘가족
문성일가족	박경선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선조가족	박용희가족	박원석가족	박인선가족	박인순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학용가족	박화수가족	박효진가족	배정경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동진가족	손종구가족	손춘자가족	손효식가족	신남희가족	신수영가족
신장섭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안성준가족	여경희가족	여운옥가족
유종우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진우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길자가족	이대훈가족	이미경가족	이수자가족	이숙희가족	이유식가족
이이순가족	이창수가족	이채우가족	이태연가족	이태호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장규협가족	장금희가족	장원환가족	장주현가족	전계순가족
전하석가족	정명숙가족	정승일가족	정화숙가족	조정자가족	천영우가족
최경식가족	하현달가족	허준혁가족	홍태숙가족	황서연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정숙 구연남 구이분 구자연 권영욱 김기미자 김덕순 김숙자 김 순 김영희
 김외분 김인옥 김정란 김정자 김종여 김지혜 김해성 김희수 노기순 도점옥
 박옥선 박용일 박용택 박유순 박현수 배태수 변명옥 서영미 손순덕 송정희
 신동선 유옥자 이경자 이말순 이모임 이상희 이서희 이옥조 이윤희 이정애
 이종순 이지선 이창익 이혜임 이홍섭 이효순 임영자 임재용 임태건 임판순
 임화자 장정순 전옥현 전화선 정명란 정연영 제현희 채태수 최삼기 하말연
 홍영숙 황순덕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특전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